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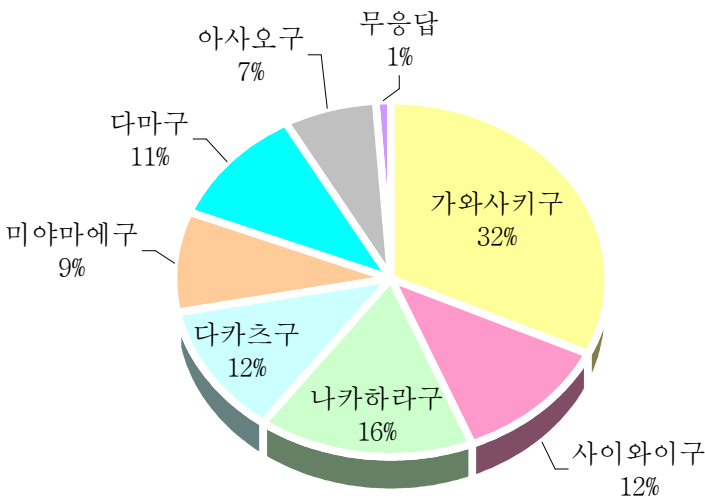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의식 실태 조사 보고서

<개요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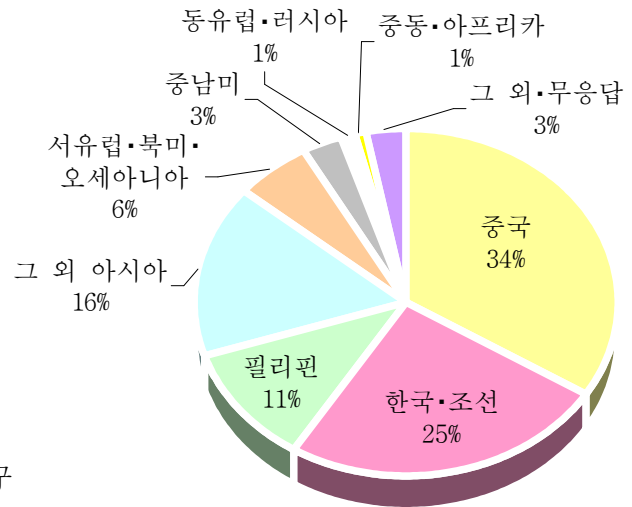
가와사키시에서는 국적, 민족, 문화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활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자립한 시민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시민의 의식, 실태, 요구 등을 파악하여 시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993 년의 조사 이후 약 20 년 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상 생활, 의료·보험, 육아·교육, 지역 활동·시정 참가, 일, 행정의 대응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조사표(설문조사 용지)는 일본어판 외에도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시내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외국인 시민(일본 국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 중 무작위로 뽑힌 5,000 명으로,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중 921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회수율:18%). 응답자는 남성이 37%, 여성이 61%, 무응답이 2%로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구별, 국적·지역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구별】



【국적·지역별】



이 「보고서<개요판>」에서는 조사 결과 중 주요 항목만 소개를 합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의 충실화를 더욱 도모하여, 향후에도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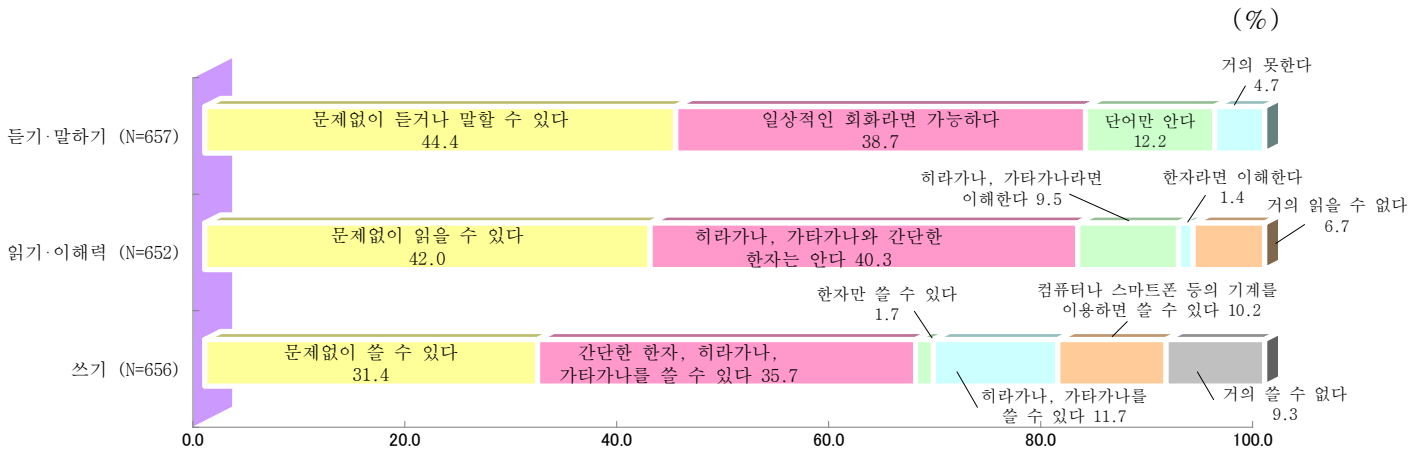
또한 보고서의 개요판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개요판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4-0-0-0-0-0-0-0.html>

■ 일본어가 「문제없다」 라는 응답은 30~40%

자신의 일본어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한 결과, 「문제없다」 라는 응답은 <듣기·말하기> <읽기·이해력>에서 약 40%, <쓰기>에서 약 30%였습니다. 한편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응답도 각각 5~9% 정도였고, 그 중에서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은 약 10%라는 결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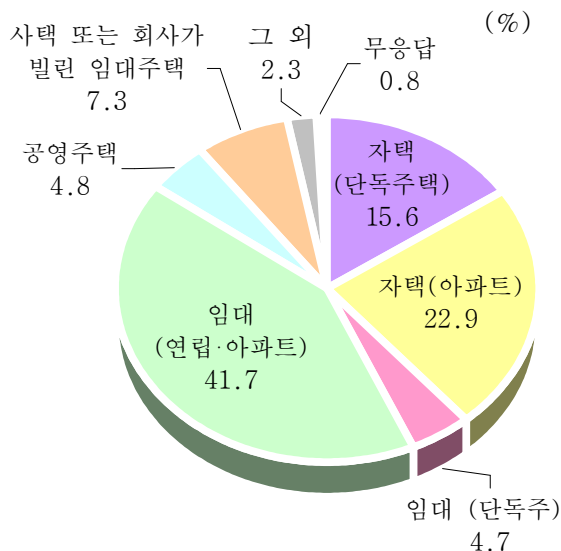
【일본어 능력】



■ 자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증가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자택(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와사키시내에 장기간 거주한 응답자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며, 최근 20 년간 자가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응답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21%), 「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었다」 (17%)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거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2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공영 주택의 응모 방법을 몰라서 곤란하였던 사람도 16%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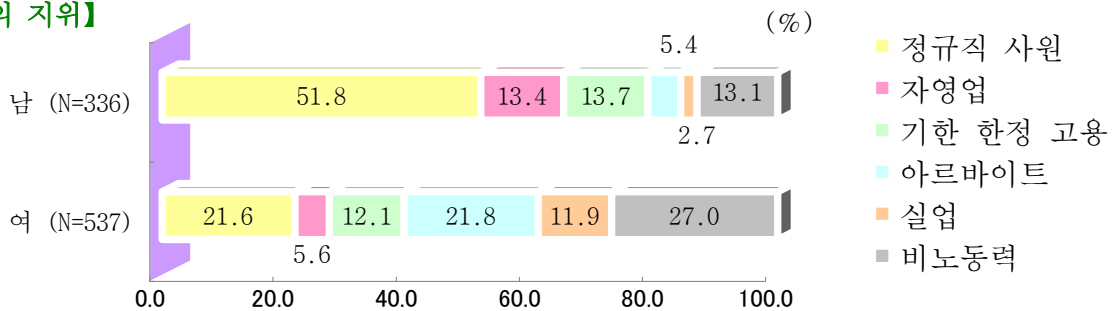
【주거의 종류】



■ 정규직 사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일본인과의 사이에서는 격차가 있음

직무상의 지위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정규직 사원이 5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은 2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회사 임원을 포함한 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1993년 조사에서 남성 40%, 여성 29%였지만, 2014년(이번 조사)에는 남성 61%, 여성 35%였습니다. 남녀 모두 정규직 고용 비율이 증가 경향이었고, 특히 남성의 증가가 현저하였습니다. 취업 구조 기본 조사(2012년)에 의하면 가와사키시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 중 정규직 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68%, 여성이 42%였습니다. 외국인과의 일본인 사이에는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아직도 격차가 있습니다.

【직무상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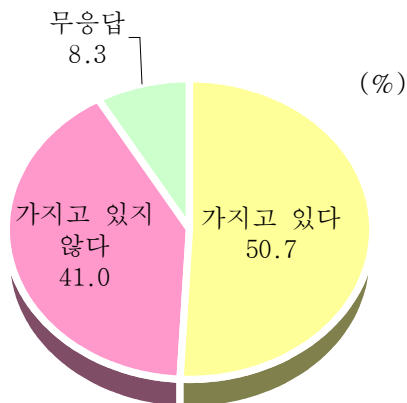


■ 자녀의 약 50%가 일본 국적

응답자 전체의 40%가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국적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자녀들의 51%가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가지고 있지 않다」 41%, 「무응답」 8%).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본어와 응답자의 모국어 둘 다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본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였습니다.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15% 있었습니다.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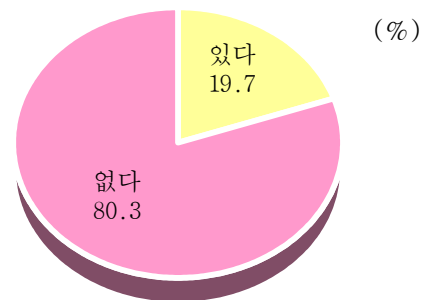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차별을 느낀 경험을 한 사람은 약 20%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취업 등 몇 가지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 중 어느 것이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 전체의 41%, 최근 1년간의 경험을 질문한 항목에서는 20%였습니다.

또한 상점, 은행, 호텔 등에서 신분 증명을 위하여 재류 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도 14%에 달하였습니다.

※재류 카드의 제시 요구가 가능한 것은 경찰관과 입국 관리국 등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뿐입니다.

【최근 1년간에 차별을 느낀 경험】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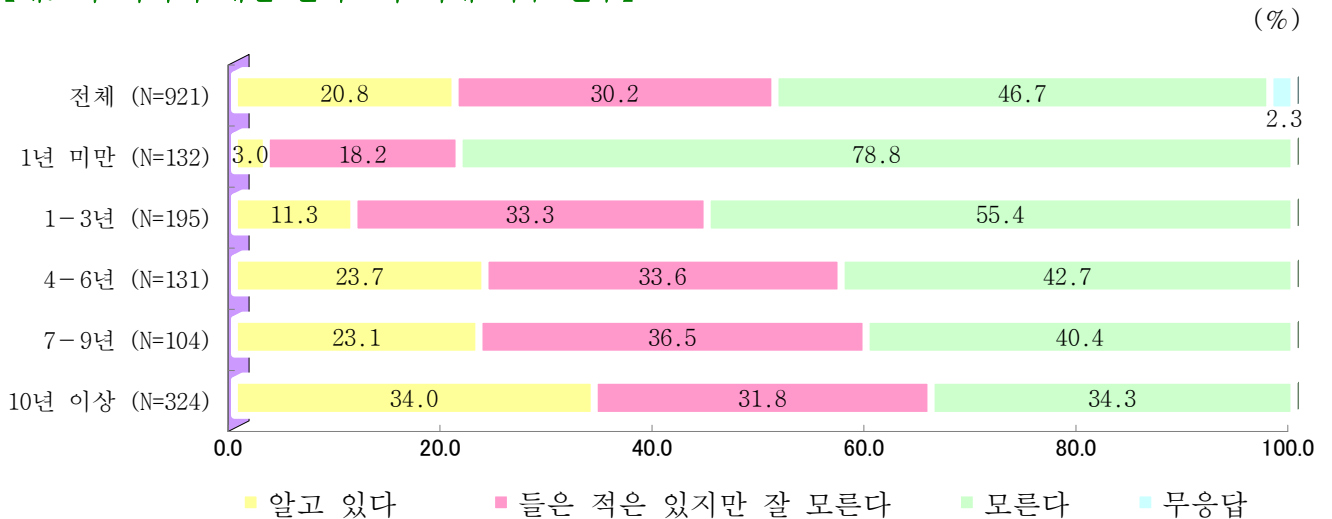
- 병원에서의 대응
- 거리 등에서 느끼는 불안·위험
-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불러 세웠다

■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20%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는 외국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추진하고, 더욱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이 대표자 회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21%, 「들은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30%, 「모른다」는 47%였습니다. 다만 가와사키시에서의 거주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인지도는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또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대표자 회의가 외국인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가 50%,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10%, 「모르겠다」가 39%였습니다.

【대표자 회의에 대한 인지도와 시내 거주 연수】



또한 더욱 자세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일본어)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4-0-0-0-0-0-0.html>

2015년 3월

발행 :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